

송당 유흥 선생 생애

松塘 兪泓 先生 生涯



기계유씨 충목공파 광주종중

《송당 유흥 선생 연보 제작 경위》

송당 유흥 선생의 연보는 공의 셋째 아들이신 참의공 대진(大進) 선조께서 처음으로 정리, 기록하여 보첩(譜牒)으로 전해 내려왔다. 그 후 참의공의 후손인 故 유문근님(대전 거주)이 송당집을 한글로 번역할 때에 보첩을 근거로 다시 연보를 정리하였으며, 또 전 대종회 유병하 회장님이 연보를 정리하고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송당 유흥 선생 생애

기계유씨(杞溪俞氏)는 경주(慶州)에서 시작되었는데, 시조 삼재공(三宰公)은 신라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아찬(阿飡)¹⁾에 까지 올랐다. 신라가 멸망하자 의신(義臣)이란 분은 고려초에 신라의 세록지신(世祿之臣)²⁾이었기 때문에 고려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고려에서는 기계현의 호장(戶長)으로 좌천시킴으로써 본관을 기계(杞溪)로 삼게 되었다.

그 후 여해(汝諧)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최항(崔沆)이 권세를 잡고 전횡을 일삼으니 바른말과 글로 최항을 꾸짖자 곧바로 멀리 해도(海島)에 유배되어 생을 마쳤으니, 이 사실은 고려사(高麗史)에 기록되어 있다. 9대조는 득선(得瑄)으로 벼슬이 좌복야(左僕射)³⁾에 이르렀고, 8대조는 선(僊)이며, 7대조는 승계(承桂)인데 두 분 모두 판도판서(版圖判書)⁴⁾을 역임함으로써 크게 가문을 일으켰다.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 고조 해(解)는 성균 진사였는데 이조참판에 증직(贈職)되었고, 증조는 기창(起昌)으로 벼슬은 첨지중추부사로 병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조부 여립(汝霖)은 예조판서를 지내시고 경안(景安)이라는 시호(諡號)⁵⁾을 받으셨다. 아버지 관(筵)은 성균생원으로 의정부 영의정을 증직 받았고, 기계부원군(杞溪府院君)에 책봉(冊封)되었다. 어머니는 의령남씨(宜寧南氏)로 정경부인에 증직되었는데 추강(秋江) 선생 효온(孝溫)의 손녀로 사복시정에 증직되신 충세(忠世)의 따님이시다.

선생의 휘는 흥(泓)이요 자(字)는 지숙(止叔)이고 호(號)는 송당(松塘)이다. 벼슬이 의정부좌의정에 이르고 광국 일등(光國一等)⁶⁾· 평난 이등(平難二等)⁷⁾의 공훈(功勳)으로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에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충목공(忠穆公)이다.

1) 아찬(阿飡) : 신라시대의 관등으로 17등 관계 중의 제6등 관계로 육두품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

2) 세록지신(世祿之臣) : 대대로 벼슬하는 집안.

3) 좌복야(左僕射) : 고려 때 상서성의 정2품 관직.

4) 판도판서(版圖判書) : 고려후기 판도사의 으뜸벼슬로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장관직.

5) 시호(諡號) : 나라에 공훈이 많은 신하 또는 고명한 신하에게 사후 나라에서 주는 이름.

6) 광국일등(光國) : 조선 국초에 무고된 증계를 바로잡은 공훈.

7) 평난이등(平難) :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처리한 공훈.

1524년(중종 19) 갑신 1세

11월 25일 서울 서부(西部) 반송방(盤松坊)의 소의문(昭義門)⁸⁾ 밖 비교(圮橋)⁹⁾ 근처에 있는 서울집에서 출생하다.

1531년(중종 26) 신묘 8세

할아버지 경안공과 아버지 기계부원군을 따라 비인(庇仁)¹⁰⁾으로 갔다. 이해 10월초 경안공께서 호조판서에 배수되었는데, 6조 판서의 우두머리인 김안로(金安老)의 나라를 그르친 죄를 논핵하다가 도리어 죄를 뒤집어쓰고 향리(鄉里)로 추방된 것이다.

1534년(중종 29) 갑오 11세

9월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다.

1537년(중종 32) 정유 14세

할아버지 경안공을 따라 서울에 돌아오다.

10월 경안공이 서용(敍用)¹¹⁾되어 예조판서에 제수되다. 이에 앞서 대사헌 양연(梁淵)·대사간 황헌(黃憲) 등이 양사(兩司)의 많은 관원들을 인솔하여 공론을 좇아 김안로의 죄를 명쾌하고 바르게 할 것을 청하니 왕이 사사(賜死)를 명령하고, 며칠 후에 이와 같은 특명을 내린 것이다.

1538년(중종 33) 무술 15세

10월 할아버지 경안공의 상을 당하다.

1543년(중종 38년) 계묘 20세

4월 비인 이화동(梨花洞) 향제로 내려갔을 때 도화동(桃花洞) 종조모(從祖母)¹²⁾를

8) 소의문(昭義門) : 속칭 서소문(西小門)이라고 한다. 숭례문(崇禮門)과 돈의문(敦義門) 사이, 즉 지금 서소문동 큰길에 위치하였던 서남간문으로 일반적인 통행로가 되었고, 광희문(光熙門)과 함께 시신(屍身)을 성 밖으로 운반하던 통로 구실을 하였다.

9) 비교(圮橋) : 지금의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의주로 4거리 근처에 있던 작은 다리.

10) 비인(庇仁)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 통박골.

11) 서용(敍用) : 죄를 지은 사람을 죄를 풀고 다시 관직에 등용하는 것.

12) 할아버지의 남자 형제들의 아내인 방계의 할머니로 아버지의 큰어머니 또는 작은어머니.

찾아뵙다. 종조모는 반갑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시(詩) 한 수를 지어 주시다.
시에 이르기를

사는 곳이 후미지니 오는 사람 적고
산이 깊어 세속의 일이 드물구나.
집이 가난하여 대접한 술도 없으니
자고 갈 손님 밤에 되돌아가네.

종조모는 바로 임벽당(林碧堂) 김씨(金氏)로 조선 중기 신사임당(申師任堂)·허난설
헌(許蘭雪軒)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여류시인으로 꼽힌다.

1549년(명종 4) 기유 26세

9월 진사(進仕)¹³⁾ 시험에 급제하다.

1553년(명종 8) 계축 30세

3월 별시문과(別試文科)¹⁴⁾에 급제하다.

윤3월 승문원¹⁵⁾ 부정자(副正字, 좳9품)의 권지(勸止)¹⁶⁾에 임명되다.

1554년(명종 9) 갑인 31세

9월 종사랑의 품계와 예문관 검열(檢閱, 좳9품)에 춘추관¹⁷⁾ 기사관(記事官)¹⁸⁾을 겸
하고 선원록(璿源錄)¹⁹⁾ 서사관(書寫官)에 제수(除授)²⁰⁾ 되다.

13) 진사(進仕) : 조선시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14) 별시문과(別試文科) : 조선시대에 정규 과거 외에 임시로 시행된 과거.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인재의 등용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던 부정기 과거시험.

15) 승문원(承文院) : 조선시대 외교에 관계되는 문서를 맡아보는 관청.

16) 권지(權知) : 조선시대 과거합격자로서 성균관·승문원·교서관·훈원원·별시위 등에 분관(分管)되어 임용 대기 중인 견습 관원으로 일종의 관리시보(官吏試補)에 해당.

17) 춘추관(春秋館) : 고려·조선시대에 시정(時政)의 기록을 관장한 관서.

18) 기사관(記事官) : 춘추관에서 시정기를 기록하여 후일 실록을 만들 때 자료로 삼는 업무로 정9품에서 정6품까지의 관직.

19) 선원록(璿源錄) : 왕실의 족보.

20) 제수(除授) : 추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임명하는 것.

1555년(명종 10) 을묘 32세

- 7월 통사랑의 품계와 예문관²¹⁾ 대교(待敎, 정8품)에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 8월 청홍도(淸洪道)²²⁾ 포쇄별감(曝曬別監)²³⁾으로 제수되다.
- 11월 통사랑으로서 승정원(承政院)²⁴⁾ 주서(注書, 정7품)를 수(守)²⁵⁾하고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1556년(명종 11) 병진 33세

- 2월 계공랑(啟功郎, 종7품)으로 승진하다.
- 8월 또 무공랑(務功郎, 정7품)으로 승진하다.
- 9월 선무랑(宣務郎, 종6품)으로 승진되다.
- 12월 선무랑으로서 성균관 전적(典籍, 정6품)을 수(守)하고 선무랑으로서 공조좌랑(工曹佐郎, 정6품)에 수(守)하다.

1557년(명종 12) 정사 34세

- 정월 강원도 어사에 임명되다.
- 4월 선무랑으로 홍문관 부수찬과 지제교(知製敎)²⁶⁾에 제배되고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 6월 선무랑으로서 성균관 전적을 수(守)하다가 예습관(隸習官)으로 좌천되고 부수찬도 교체되다.
- 7월 병절교위(秉節校尉, 무관 종6품하)로서 경상우도 병마평사(兵馬評事, 정6품)을 수(守)하다.
- 8월 여절교위(勵節校尉, 종6품상)로 승진되다. 당시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을 때 조정에서 선생이 무예의 지략이 있음을 알고 특별히

21) 예문관(藝文館) : 조선시대에 국왕의 말이나 명령을 담은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22) 청홍도(淸洪道) : 충청도의 옛 이름.

23) 포쇄별감(曝曬別監) : 사고(史庫)의 서적을 관리하는 벼슬.

24) 승정원(承政院) :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

25) 행수법(行守法)에 의해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行)'이라고 하며 그 직은 '행직(行職)'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守)'라고 하며 그 직은 '수직(守職)'이라고 한다.

26) 지제교(知製敎) : 왕에게 교서 등을 기초하여 바치는 벼슬.

천거되어 이 직책에 임명되었다.

1558년(명종 13) 무오 35세

- 2월 진용교위(進勇校尉, 종6품하)로 승진되다.
- 4월 승훈랑(承訓郎, 정6품상)으로 홍문관²⁷⁾ 수찬(修撰, 정6품)과 지제교에 제배되고 경연²⁸⁾ 검토평과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 6월 승훈랑 병조좌랑(兵曹佐郎, 정6품)이 되었다가 이어 승훈랑 홍문관 수찬 지제교가 되고 경연 검토평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 7월 다시 승훈랑 병조좌랑이 되고 선전관(宣傳官)²⁹⁾과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 8월 경상도 어사에 임명되고 9월 경상도 점마(點馬)³⁰⁾을 제수 받다.
- 12월 평안도 강상어사(江上御史)에 임명되다.

1559년(명종 14) 기미 36세

- 정월 승훈랑으로서 홍문관 부수찬을 행하고 지제교와 경연 검토평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이어 승훈랑 병조좌랑이 되었다가 또 승훈랑 홍문관 부수찬 지제교를 행하고 경연 검토평과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 3월 수찬으로 승진되니 이로부터 점차 영전하는 왕명이 많아졌다. 이어서 승훈랑 병조좌랑이 되니, 이로부터 수찬을 제수 받은 것이 일곱 번이요 병조좌랑에 보임된 것이 세 번이다.
- 4월 승의랑(承議郎, 정6품상)으로서 사간원 정언(正言, 정6품)이 되다.
- 6월 승의랑으로 사헌부 지평(持平, 정5품)을 행하다가 이어 승의랑으로서 홍문관 부수찬으로 옮겨 지제교와 경연 검토평과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 7월 승의랑으로서 사헌부 지평을 수(守)하다.
- 8월 승의랑으로서 공조정랑(工曹正郎, 종5품)을 수하다. 이어 승의랑으로서 병조정랑을 수(守)하다.

27) 홍문관(弘文館) : 조선시대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와 문헌(文翰)의 처리 및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서.

28) 경연(經筵) : 임금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

29) 선전관(宣傳官) : 선전관청에 소속된 관원으로 정3품부터 종9품까지의 관원.

30) 점마(點馬) : 말을 관리하는 일.

9월 봉훈랑(奉訓郎, 종5품하)으로 승진되다.

12월 봉훈랑으로서 홍문관 부수찬을 행하고 지제교와 경연 검토관과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1560년(명종 15) 경신 37세

정월 봉훈랑으로서 병조정랑을 수하다.

4월 문사낭청(問事郎廳)³¹⁾을 제수하니 그때 어떤 사람이 주인을 살해하였으므로 삼성(三省)³²⁾의 관원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하였다.

5월 승의랑으로서 성균관 전적(典籍)이 되었다가 이조좌랑으로 옮기니 그때 사람들이 대궐 안에서 징을 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어 이 책임을 물어 취해진 조치이며 전적 이하로 더 깎이지는 아니하였다.

6월 승의랑 이조좌랑 지제교가 되다.

9월 봉직랑(奉直郎, 정5품하)으로 승진되다.

11월 신병(身病)으로 잠시 휴직하다.

12월 봉직랑으로 성균관 전적과 지제교를 행(行)하다.

1561년(명종 16) 신유 38세

2월 봉직랑으로서 이조좌랑과 지제교가 되다.

5월 통선랑(通善郎, 정5품하)으로 승진되어 경기도 도사(都事, 종5품하)를 행하고 춘추관 기주관(記注官, 종5품 또는 정5품)을 겸하다.

9월 통덕랑(通德郎)으로 승진되어 경기도의 점마(點馬)를 제수 받다.

11월 조산대부(朝散大夫, 종4품)로 승진되다.

1562년(명종 17) 임술 39세

4월 조산대부로서 병조정랑과 지제교를 행하다.

7월 함경도 어사에 임명되다.

31) 문사낭청(問事郎廳) : 범인을 취조하는 벼슬.

32) 삼성(三省) : 강상죄인(綱常罪人)을 추국하는 세 기관으로 의정부와 의금부, 사헌부를 일컫음.

1563년(명종 18) 계해 40세

- 5월 봉정대부(奉正大夫, 정4품상)로 승진되어 홍문관 교리(校理, 정5품)와 지제교를 행하고 그날로 또 경연 시독관(侍讀官, 정5품)과 춘추관 기주관을 겸하다.
- 6월 봉정대부로서 병조정랑과 지제교를 행하다.
- 7월 봉정대부로서 의정부 검상(檢詳, 정3품에서 정4품까지)과 지제교를 행하고 춘추관 편수관(編修官, 정3품에서 정4품까지)을 겸하다.
- 8월 봉정대부로서 의정부 사인(舍人, 정4품)이 되고 그날로 지제교 춘추관 편수관을 겸하다.
- 9월 중직대부(中直大夫, 종3품상)로 승진되어 비변사 낭청(備邊司郎廳)³³⁾으로 제수되다.
- 10월 선전관청(宣傳官廳)의 선전관을 겸하다.
- 12월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하)로 승진되고 훈련도감이 되었는데 이는 특별한 포상으로 받은 것이다. 이어 통훈대부로서 사헌부 장령(掌令, 정4품)과 지제교를 행하다.

1564년(명종 19) 갑자 41세

정월 통훈대부로 사헌부 집의(執義, 종3품)와 지제교를 행하다. 이때 선생이 소(疏)를 올려 당시의 폐단을 지적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내시들의 뜻으로 벼슬을 제수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정청(政廳)에 내리니 이 어찌 옛날의 묵칙(墨勅)³⁴⁾을 하지 않고 봉하는 것과 다를 바 있겠습니까? 성명(聖明)³⁵⁾에 큰 누가 될까 두렵다.” 하여 말이 대단히 간곡하고 강경하니 명종대왕이 심히 불쾌하게 여겨 선생을 좌천시켰다.

2월 통훈대부로서 사복시정(司僕寺正, 정3품하)과 지제교가 되다. 상소와 연관되어 체직되었다.

윤2월 평안도 병기적간(兵器摘奸)³⁶⁾ 어사에 임명되다.

33) 비변사 낭청(備邊司郎廳) : 변방의 군무를 맡아 보는 곳.

34) 묵칙(墨勅) : 왕이 직접 내리는 칙서.

35) 성명(聖明) : 왕이 하는 말.

36) 병기적간(兵器摘奸) : 군수품의 점검.

8월 위감시(闈監試)³⁷⁾에 선생이 고시관이 되었는데 그때 덕수인(德水人) 율곡(栗谷) 선생 이이(李珣)가 의리를 밝힌 문장으로 많은 선비들 가운데 장원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그가 젊은 시절에 불교를 신봉하였던 것을 험담하는 이가 있는지라 선생이 “사람이 처음 배울 때의 잘못은 옛 선유(先儒)에게도 흔히 있던 일이며 이제 이미 정학(正學)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이 허물이겠습니까!” 하니 분분하던 공론이 곧 가라앉았다. 식자들이 잘된 일이라 하였다.

8월 청홍도(淸洪道) 어사에 임명되다.

10월 통훈대부로 의정부 사인과 지제교를 행하고 춘추관 편수관을 겸하다.

1565년(명종 20) 을축 42세

2월 통훈대부로 홍문관 응교(應敎, 정4품)를 행하고 경연 시독관과 춘추관 편수관을 겸하다.

3월 통훈대부로 의정부 사인과 지제교를 행하며 춘추관 편수관을 겸하다.

4월 문정왕후 산릉(山陵) 도감낭청(都監郎廳)³⁸⁾에 제수되다.

9월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로 승진되니 도감(都監) 업무시 공이 있어 이에 대한 포상이다. 이어 절충장군(折衝將軍, 무관직으로 정4품)으로 용양위(龍驤衛)³⁹⁾의 사직(司直)과 지제교를 행하다.

10월 2일 절충장군으로 호분위(虎賁衛)⁴⁰⁾의 호군(護軍, 정4품)을 행하고 오위와 지제교를 겸하다.

10월 7일 절충장군으로 호분위의 대호군(大護軍, 정3품)을 행하다.

10월 19일 통정대부로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 정3품 당상)와 지제교가 되어 경연 참찬관(參贊官, 정3품 당상)과 춘추관 수찬관(修撰官, 정3품 당상)을 겸하다.

1566년(명종 21) 병인 43세

3월 통정대부 춘천 도호부사(都護府使, 정3품)와 원주 진관(原州鎭管)⁴¹⁾의 병마 동

37) 위감시(闈監試) : 정기(定期) 과거시험.

38) 도감낭청(都監郎廳) : 장례 사무를 처리하는 임시관청.

39) 용양위(龍驤衛) : 군제(軍制)로 오위(五衛) 중의 하나.

40) 호분위(虎賁衛) : 군제로 오위 중의 하나.

41) 진관(鎭管) : 지방의 방위(防衛) 조직.

침절사(同僉節使, 종4품)를 행하니 당시 어머니인 의령남씨(宜寧南氏)가 생존하셨기 때문에 선생이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자원하여 왕이 특별히 춘천부사(春川府使)를 제수하다.

선생이 춘천부사가 되어 모든 행정을 너그럽고 어질게 하며 부역이 균등하고 공평하게 하니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여기었다. 강원도 관찰사가 선생의 치적을 제일이라고 조정에 보고하여 임금의 표리(表裏)⁴²⁾와 포상문(褒賞文)을 내리셨다. 선생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니 군민들이 선생의 덕행을 사모하여 저자에 유애비(遺愛碑)를 세우고, 큰 길가에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또 형상을 모조하여 놓고 제사까지 지내었다.

선생이 춘천부사 재임 시 군민 한 명이 흰 꿩 한 마리를 잡아 상서로운 새라 하여 바치며 조정에 알릴 것을 청하니 선생이 ‘이것이 어찌 상서로운 일이 되겠느냐’고 받지 아니하였다.

1568년(선조 원년) 무진 45세

8월 절충장군으로 의흥위(義興衛)⁴³⁾ 호군과 지제교를 행하고 이어 오위(五衛)⁴⁴⁾을 겸하다.

9월 통정대부로 호조참의(戶曹參議, 정3품 당상)와 지제교가 되다.

11월 통정대부로서 충청도 관찰사(觀察使, 道伯 종2품)를 행하고 수군병마절도사(水軍兵馬節度使, 종2품)를 겸하다.

1569년(선조 2) 기사 46세

11월 절충장군으로서 중추부(中樞府)⁴⁵⁾ 첨지사(僉知事, 정3품 당상)가 되다.

1570년(선조 3) 경오 47세

2월 통정대부로서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 정3품 당상)와 지제교가 되고 경연 참

42) 표리(表裏) : 왕이 내리는 하사품으로 의복.

43) 의흥위(義興衛) : 군제로 오위 중의 하나.

44) 오위(五衛) : 동·서·좌·우·중의 5개의 위(衛).

45) 중추부(中樞府) : 중추원, 일정한 사무가 없는 부서로 당상관의 벼슬자리.

찬관과 춘추관 수찬관을 겸하다.

4월 숙부 숙민공(肅敏公, 兪纘)의 상(喪)을 당함에 행장(行狀)과 묘지문(墓誌文)을 짓다.

1571년(선조 4) 신미 48세

8월 절충장군으로 용양위의 대호군과 지제교를 행하고 오위를 겸하다.

10월 통정대부로 예조참의(禮曹參議, 정3품 당상)가 되고 지제교를 겸하다.

1572년(선조 5) 임신 49세

4월 통정대부로 전라도 관찰사(觀察使)를 수하고 수군병마절도사(水軍兵馬節度使)를 겸하다. 선생이 본도 재임 시에 폭풍에 표류된 중국인을 구조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니 명나라 천자(天子)가 고맙게 여겨 의복 2벌과 백금 20냥을 하사(下賜)하다.

1573년(선조 6) 계유 50세

5월 절충장군으로 증추부 첨지사가 되다.

7월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로 승진되어 회령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를 행하고 회령진관(會寧鎭管)의 병마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 종4품)를 겸하다.

1574년(선조 7) 갑술 51세

정월 호분위의 상호군(上護軍, 무관직 정3품하)으로 승진되다.

3월 가선대부로 호분위의 상호군을 행하고 오위를 겸하다. 가선대부로 개성유수(開城留守, 종2품)⁴⁶⁾가 되다.

1575년(선조 8) 을해 52세

정월 개성부에서 어머니의 상을 당하다.

46) 유수(留守) : 수도 주위의 특수지방장관.

1577년(선조 10) 정축 54세

- 3월 가선대부로 의흥위의 상호군을 행하다.
- 5월 창경궁(昌慶宮)의 호위장(扈衛將)을 겸하다.
- 6월 가선대부로 중추부 동지사(冬至使, 종2품)⁴⁷⁾가 되다.
- 7월 가선대부로 경상도 관찰사가 되고 수군 병마절도사를 겸하다.

1578년(선조 11) 무인 55세

- 정월 가선대부로 중추부 첨지사를 행하니 대간(臺諫)⁴⁸⁾의 논란으로 좌천되다.
- 6월 가선대부로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종2품)이 되었으나 신병으로 교체되다.
- 8월 가선대부로 중추부 지사(知事, 종2품)가 되고 이어 오위장(五衛將, 종2품)을 겸하다.
- 10월 가선대부로 형조참판(刑曹參判, 종2품)이 되다.

1579년(선조 12) 기묘 56세

- 2월 태릉(泰陵)의 병풍석(屏風石)이 어그러지는 일이 있어 파직되었는데, 지난 을축년 4월 문정왕후 국상 때 선생이 산릉도감(山陵都監)이 되어 공사를 감독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책이 있었다.
- 3월 가선대부로 중추부 동지사가 되었다가 이어 가선대부 형조참판이 되니 왕이 특별히 하명한 것이다.
- 5월 가선대부 호조참판(戶曹參判, 종2품)이 되고 그날로 전생서(典牲署)⁴⁹⁾ 제조(提調, 정2품)를 제수하다.

1580년(선조 13) 경진 57세

- 2월 오위도총부 부총관(副總管, 종2품)을 겸하다.
- 6월 승문원 제조를 제수하다.
- 8월 의금부동지사가 되다.

47) 동지사(冬至使) : 매년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는 사신.

48) 대간(臺諫) :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

49) 전생서(典牲署) : 조선시대 궁중의 제향(祭享)·빈례(賓禮)·사여(賜與)에 쓸 가축을 기르는 일을 맡았던 관서.

1581년(선조 14) 신사 58세

정월 가선대부 함경도 관찰사가 되고 수군 병마절도사와 함흥부윤을 겸하다.

1582년(선조 15) 임오 59세

12월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하)로 승진되고 한성판윤(漢城判尹, 정2품)⁵⁰⁾에 특배되다.

1583년(선조 16) 계미 60세

정월 비변사(備邊司)⁵¹⁾ 제조(提調, 정2품)를 제수하다.

2월 승문원 제조를 제수하고 또 선공감⁵²⁾ 제조와 전연사⁵³⁾ 제조를 제수하다.

3월 의금부 지사(知事)를 겸하다.

9월 자헌대부 공조판서(工曹判書, 정2품)가 되고 의금부 지사를 겸하다.

11월 오위도총부 도총관(都摠管, 정2품)을 겸하다

1584년(선조 17) 갑신 61세

2월 자헌대부 예조판서(禮曹判書, 정2품)에 제배되고 의금부 지사와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다.

8월 자헌대부로 평안도 관찰사를 행하고 수군 병마절도사와 평양부윤(平壤府尹, 종2품)을 겸하다.

1586년(선조 19) 병술 63세

8월 자헌대부로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가 되다.

10월 전설사 제조(典設司提調)⁵⁴⁾을 제수하다.

50) 한성판윤(漢城判尹) : 지금의 서울특별시장.

51) 비변사(備邊司) : 조선 중·후기의 최고 정무기관.

52) 선공감(繕工監) : 토목과 건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구.

53) 전연사(典涓司) : 궁궐의 수리와 청소를 맡아보는 관서.

54) 전설사(典設司) : 궁중에서 사용하는 장막(帳幕)의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부서.

1587년(선조 20) 정해 64세

4월 비변사 제조를 제수하다.

8월 전설사 제조와 승문원 제조를 제수하다.

10월 선생이 사은사가 되어 이전에 중국 명나라에 경사에 갔을 때 명 황제가 망의(蟒衣)를 하사하였다. 이 옷을 입고 가려 하니 그 모습이 흡사 곤룡포를 입은 것과 같았다. 동사실록(東史實錄)에 이르기를 ‘이에 앞서 명나라에서는 우리 이태조를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오인하여 회전(大明會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기록된 명나라의 책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다가 선생이 명나라에 이르러서야 고쳐진 회전(會典)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해설】

10월 선생이 명나라에 사은사(謝恩使)⁵⁵로 떠나게 됨에 전년 명황제가 하사한 망의(蟒衣)를 입고 이번 사행에서 종계변무(宗系辨誣)가 성사되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떠나다.

고려 말 이태조(李太祖)의 반대파인 윤이(尹彝)·이초(李初) 등이 명나라로 도망가서 이태조의 아버지는 이자춘(李子春)임에도 불구하고 고려 말의 권신(權臣)이요 반명친원파(反明親元派)인 이인임(李仁任)이 이태조의 아버지라고 거짓말을 하여 명나라에서는 그렇게 알고 명사(明史)에 기록하였다.

이는 윤이·이초가 이태조의 대명외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획책한 일인데 이로 말미암아 과연 조선건국 초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왔다. 새로 건국한 조선이 중국 대륙을 장악한 신흥 명나라의 우호와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조선 건국 초 대명외교는 순탄치 못하였고 따라서 이 종계무고(宗系誣告)를 시정하기 위하여 일찍이 태종 때부터 4년마다 사은사를 보내어 무고된 종계시정(宗系是正)을 요청하였으나 명나라에서는 말로만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200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르러 새로 편찬된 대명회전록(大明會典錄)에서는 우리나라의 숙원인 종계무고가 시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좀처럼 주지 않아 선조대왕의 궁금증과 기다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선생이 이번 사행(使行)에서 이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야 할 중책을 맡고 떠나게 되었다.

1588년(선조 21) 무자 65세

2월 선생이 중국의 옥하관(玉河關)에 머무르면서 대명회전(大明會典)의 재판찬이 완성됨을 듣고 예부분부(禮部本部)에 소문(疏文)을 올려 명 황제로부터 빨리

55) 사은사(謝恩使) : 명나라에 보내는 사절, 명나라에서 4년마다 역사를 다시 편찬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그 때마다 사절을 보내어 무고시정(誣告是正)을 주청(奏請)했다. 그래서 사은사를 주청사라고도 한다.

주라는 승낙을 얻다.

【해설】

이에 앞서 선생이 하마연(下馬宴)⁵⁶⁾을 하던 날 소문(疏文)을 올려 새로 편찬된 대명회전록을 빨리 줄 것을 요청하니 예부에서 황제의 어람(御覽)⁵⁷⁾이 안 되어 아직은 줄 수가 없다고 하는지라 선생이 다시 청하기를 우리나라의 선대 종계가 무고를 받아서 군신(君臣)이 금수(禽獸)와 같은 치욕에 빠진지 200년이 되었다. 대체로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죽음이 있을 따름이라고 눈물을 흘려 옷을 적시고 우리 국왕이 개정된 대명회전을 보지 못하면 한시도 편안치 못하시니 만약 우리들의 이를 얻어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황성(皇城) 아래서 말라 죽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하고 드디어 머리를 문턱에 부딪치어 유혈이 낭자하게 되니 예부상서 심리(沈鯉)가 선생의 지극한 충성심에 감탄하여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하였다. 명 황제도 또한 크게 탄복하여 이번에 온 사신들의 충성심이 이와같이 지극하니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주도록 하라는 조칙이 내렸다.

5월 수정된 대명회전을 가지고 돌아오니 선조대왕이 칙사를 교외에서 영접하였다. 그날 노비 5구와 전답 30결을 하사하고 관직을 종합하니 30개가 같았다. 그날 곧 명을 내려 품계를 올려 주었다.

【해설】

5월 3일 선생이 새로 편찬된 대명회전록을 얻어 가지고 명나라 칙사(勅使)와 함께 돌아오니 선조대왕이 크게 기뻐하여 친히 모화관(慕華館)⁵⁸⁾에 나와 명나라 칙사를 영접하고 선생에게 특별히 품계를 올려주고 노비 5명과 전답 30결을 하사 하였다. 5월 7일에는 왕이 친이 종묘(宗廟)로 가서 종계변무의 성사를 고하는 제사를 올리고 국가의 큰 경사라하여 정3품 이상 관원들에게는 1계급 특진시켜 주되 올려 줄 수 없는 이는 자제를 올려 주도록 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대사면령을 내렸다. 이때 선생의 장자 대술(大述)에게도 특진이 있었다.

5월 11일 승록대부(崇祿大夫, 종1품) 증추부 판사(判事, 종2품)로 특진되다.

【해설】

5월 19일 왕이 문묘(文廟)⁵⁹⁾에 참배하고 알성과(謁聖科)⁶⁰⁾을 실시케 하였다. 은정전(恩政殿)으로 돌아와 각 부처의 관원들과 사신(詞臣)들을 명하여 중국인 마유명(馬維銘)의 운(韻) 자에 따라 축하의 시를 짓도록 하고 왕도 직접 서문과 시를 지으니 이것이 바로 광국지경록이다.

이에 앞서 선생이 새로 편찬된 대명회전록을 얻어 가지고 돌아오는 도중 산해관(山海關)에 도착하니 산해관 주사 마유명이 선생의 충성심을 찬양하고 종계변무의 성사를 축하하는 뜻에서 시 한 수를 지어주니

56) 하마연(下馬宴) : 처음 초대되는 잔치.

57) 어람(御覽) : 황제의 인가.

58) 모화관(慕華館) : 지금의 영빈관이니 서대문 밖에 있었다.

59) 문묘(文廟) : 성균관의 공자묘.

60) 알성과(謁聖科) : 경사가 있을 때 하는 부정기 과거.

선생이 시 두수를 지어 화답하였다. 선생이 귀국하여 선조께 복명하는 자리에서 이 일을 같이 아뢰니 왕이 크게 기뻐하여 이러한 명을 내리게 된 것이다.

5월 25일 승록대부로 예조판서를 행(行)하다.

윤6월 혜민서⁶¹⁾ 제조를 제수하다.

7월 장악원 제조를 제수하고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다.

11월 승록대부 의정부 좌찬성(左贊成, 정1품)이 되고 의금부 판사를 겸하다. 이날 의정대신의 의론이 있었으나 이 직책을 내렸다.

12월 승록대부 의정부 좌찬성이 되고 의금부 판사와 경연지사를 겸하다.

1589년(선조 22) 기축 66세

9월 승록대부 동영부판사가 되고 의금부판사를 겸하였다가 병환으로 소장(疏狀)을 올리니 다만 예조판서를 교체하라는 명이 내리다. 이 해 전(前) 수찬 정여립(鄭汝立)이 모반을 일으키니 기축옥사(己丑獄事)가 일어난다.

1590년(선조 23) 경인 67세

정월 기성군(杞城君)으로 봉하니 선조가 대명회전을 가지고 온 공신 중 가장 먼저 선생에게 봉호를 내린 것이다. 그때 선생이 승문원 제조로서 숙마(熟馬)⁶²⁾ 한 필을 하사 받다.

2월 12일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정1품하) 의정부 좌찬성을 행하고 의금부 판사와 경연지사를 겸하고 기성군으로 봉하니 이때 선생이 기축옥사를 담당하는 추관(推官)⁶³⁾으로서 공이 있어 관직이 오른 것이다.

2월 19일 보국승록대부 기성부원군(杞城府院君)에 봉하고 경연지사를 겸하다.

3월 추관(推官)으로서 역모사건을 다스리고 왕이 또한 친국(親鞫)을 하다. 전답 8결(結)과 노비 6명을 하사하다.

5월 의정대신의 물망에 오르다.

61) 혜민서(惠民署) : 의약으로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

62) 숙마(熟馬) : 다 자란 말.

63) 추관(推官) : 의금부에서 특별교지에 의하여 중죄인을 캐어 묻는 벼슬.

- 6월 수충공성(輸忠貢誠)⁶⁴ 익모수기(翼謨修紀)⁶⁵ 광국공신(光國功臣)⁶⁶의 훈호(勳號)와 추충분의(推忠奮義)⁶⁷ 병기협책(炳幾協策)⁶⁸ 평난공신(平難功臣)⁶⁹의 훈호 그리고 보국승록대부 기성부원군의 봉호를 받고 경연지사를 겸하다.
- 8월 9일 역적의 가사재물을 하사 받고 존호를 올려 도제조(都提調, 정1품)가 되고 숙마 한 필을 하사받다.
- 8월 16일 광국 1등의 공신훈호와 평난 2등의 공신훈호를 받다.
- 8월 25일 광국 회맹제(光國 會盟祭)⁷⁰을 지내고 8월 26일 평난 회맹제(平難 會盟祭)⁷¹을 지내다. 광국회맹연서 1등 공신(유홍·윤근수·황정욱)의 상으로 노비 13명과 전답 150결, 병조리(兵曹吏)⁷² 7명과 반당(伴黨)⁷³ 10명 그리고 백금 50냥, 내구마(內廐馬)⁷⁴ 한 필, 표리(表裏) 한 벌 등을 하사받다. 또 평난 회맹연에서 2등 공신의 상으로 노비 10명과 전답 100결, 병조리 4명과 반당(伴黨) 8명 그리고 백금 30냥, 외구마 한 필, 표리 한 벌 등을 하사받다. 겹하여 두 회맹연에서 숙마(熟馬) 한 필씩을 각각 하사 받다.
- 9월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다.
- 10월 6일 경연(經筵) 영사(領事, 정1품)를 겸하다.
- 10월 10일 경연 지사(知事)를 겸하다. 대신이 아닌 분이 경연 영사를 겸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간의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쳐서 한 것이다.
- 11월 25일 선생의 탄신일에 왕이 공신을 위한 잔치를 대궐에서 베풀고 말 한 필을 하사하니 이것은 외방(外方)에서 진상한 진귀한 말이다.
- 11월 26일 수충공성 익모수기 광국공신의 훈호와 추충분의 병기협책 평난공신의 훈호 그리고 보국승록대부로서 이조판서를 행하고 경연 지사를 겸하다. 또 기

64) 수충공성(輸忠貢誠) : 충성을 다하여 정성을 받치었다는 뜻.

65) 익모수기(翼謨修紀) : 슬기로운 꾀를 내어 기강을 닦았다는 뜻.

66) 광국공신(光國功臣) : 국가의 명예를 빛낸 공신 즉 종계변무의 공을 세운 신하.

67) 추충분의(推忠奮義) : 충성심을 발휘하고 정의심을 분발하였다는 뜻.

68) 병기협책(炳幾協策) : 국가시책에 협력하였다는 뜻.

69) 평난공신(平難功臣) : 반역내란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신하.

70) 광국 회맹제(光國 會盟祭) : 종계변무의 공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성을 맹세하며 지내는 제사.

71) 평난 회맹제(平難 會盟祭) : 반역 내란을 평정한 공신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성을 맹세하며 지내는 제사.

72) 병조리(兵曹吏) : 측근 수행원.

73) 반당(伴黨) : 조선시대 왕자나 공신 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하여 주는 병졸 즉 경호원.

74) 내구마(內廐馬) : 궁궐에서 기르던 말.

성부원군을 봉하다. 이조판서로서 기축옥사(己丑獄事)⁷⁵⁾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여 옥사에 연루된 자가 심히 많아 선생이 경석(經席)⁷⁶⁾에서 말하기를 “초나라 옥사(獄事)처럼 권력남용이 많으면 후일에 반드시 이의가 있을까 두렵다” 하니 이 일로 사건에 연루된 자 중에 구제된 자 심히 많았다. 인하여 좌의정 류성룡(柳成龍)으로 이조판서를 겸하게 하고 선생을 교체하다.

1591년(선조 24) 신묘 68세

정월 광국공신과 평난공신 그리고 보국승록대부 기성부원군을 봉하고 경연지사를 겸하다.

9월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다. 이 해 이른 봄에 선생이 경기도 광주(廣州) 땅 검단산(黔丹山) 동편 퇴촌면(退村面) 우천리(牛川里) 숲과 샘이 그윽하고 한적한 곳 강가에 있는 정자에 퇴거(退居)하다. 이로 인하여 퇴촌(退村)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해설】

어떤 가전(家傳)에는 이때 선생이 이곳에 정자를 지어 퇴우당(退憂堂)이라 명명하고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사암(思庵) 박순(朴淳) 등 명사들이 초청되어 퇴우당시첩에 시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연은 모두 잘못된 기록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암 박순은 선조 22년 기축(己丑)에 사망했고, 소재 노수신도 기축년 정여립 옥사가 일어나자 소재(蘇齋)가 정여립을 조정에 잘 못 천거한 죄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어 향리에서 선조 23년 경인(庚寅)에 사망했으니 선조 24년 신묘(辛卯) 봄 선생이 이 강정(江亭)에 퇴거할 때에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분들이다. 따라서 퇴우당시첩에 그분들이 쓴 것은 모두 그 이전의 시들이다. 그분들이 이미 그 이전에 우천리 강정을 찾았고 퇴우당시첩에 증시(贈詩)하였으니 선생이 이 정자를 지은 지는 벌써 여러 해 전임을 알 수 있고 퇴우당이라는 이름도 정자의 이름이라기 보다는 선생이 중국 송나라의 명유(名儒) 범중엄(范仲淹)의 악양루기(岳陽樓記)의 “나가도 나라 걱정 물러나도 또한 나라 걱정”이라는 뜻이 마음에 들어 젊은 시절부터 시인(詩人)의 아호(雅號)를 퇴우당이라고도 하여 시첩을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어떻든 이해 이른 봄에 선생이 이 정자에 내려와 퇴거 하였는데 이 퇴휴(退休)는 한적한 것이 아니었다. 이때의 심정을 읊은 시가 이 송당집에도 수록되어있다. 이르기를 “어제 역모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오늘 역적으로 물려 있다”는 고백이다. 기축옥사를 다스린 선생이 역습을 당하여 더 이상 서울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동지들인 송강(松江) 정철(鄭澈)은 강계(江界)로 귀양 갔고 오음(梧陰) 윤두수(尹斗

75) 기축옥사(己丑獄事) : 정여립(鄭汝立)의 반역사건을 다스리는 일.

76) 경석(經席) : 왕을 모시고 사건을 보고하는 자리.

壽)는 연안(延安)으로 귀양을 떠났다. 이때 선생이 이 강정에 내려온 것은 송강이나 오음의 심정과 다를 바 없었으리라. 또 이때에 이미 선생은 가족들을 송가하여 이 강정에 내려왔던 것이 선생의 넷째아들 대일공(大逸公)의 글에 역력히 나타나 있다. 이로 인하여 퇴촌(退村)이라는 이름이 나고 후세까지도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 69세

4월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하다.

4월 13일 왜군이 대거 침입하였다.

5월 수충공성 익모수기 광국공신·추충분의 병기협책 평낭공신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정1품상) 의정부 우의정(右議政, 정1품하)이 되고 경연영사와 춘추관감사(春秋館監事, 정1품)를 겸하고 기성부원군을 봉하다. 이에 앞서 세 번 복상(卜相)⁷⁷⁾의 논의가 있었다가 이번에 정승이 되었다. 이어 도체찰사(都體察使)⁷⁸⁾에 임명되다.

【해설】

이 해 4월 13일 왜군이 대거 침입하여 부산진(釜山鎭)에 상륙하고 동래성(東萊城)을 치니 하루도 못 버티고 무너졌다. 왜군은 이 여세를 몰아 파죽지세로 북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준비가 없었으므로 제대로 싸움 한번 하지 못했다. 조정에서는 이 급보를 접하고 신립(申稔) 장군을 보내어 막도록 하였으나 충주 탄금대(彈琴臺)에서 패하고 전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왜군의 형세는 더욱 기세가 올랐고 급박한 보고는 시시각각으로 들어오니 조정에서는 대비책으로 서천(西遷) 계획을 세웠는데 장차 서방(西方)⁷⁹⁾으로 옮기었다가 사세가 불리하면 요동(遼東)⁸⁰⁾으로 건너간다는 계획이다.

이럴 때 선생이 광주 강정에 있다가 급보를 받고 부랴부랴 서울에 들어오니 백성들은 분산되어 서울이 거의 비어 있었다. 선생은 즉시 소(疏)를 올려 서천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니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종묘(宗廟)가 여기에 있고 사직(社稷)이 여기에 있고 창고가 또한 여기에 있으며 인민(人民)이 여기에 있는데 왕은 장차 여기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렵니까!. 우리들이 비록 간다 하여도 왜적들은 또한 따라 올 것이니 만약 달아나는 도중에 어떠한 변고라도 생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계획은 군신이 사직과 같이 죽을 각오로 하는 대의명분을 선도하여 군·관·민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수도 서울을 버리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여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소문을 보고 왕이 불려서 위로하며 효유하기를 경(卿)의 말이 지극히 당연하니 내가 마땅히 죽음을 다 할 것이라 하더니 충주의 패보(敗報)를 접하자 4월 29일 자정 넘어 선조대왕은 왕세자와 육궁(六宮)

77) 복상(卜相) : 정승이 될 사람을 가려보는 일.

78) 도체찰사(都體察使) : 전시에 설치 임명하는 현대의 계엄사령관 같은 것.

79) 서방(西方) : 관서, 의주.

80) 요동(遼東) : 중국 남만주지방.

을 거느리고 돈의문(敦義門)⁸¹)을 나와 서쪽으로 향하니 선생이 가족을 버리고 왕을 뒤따를 때에는 한 필의 말로 어가(御駕)를 호위하였다. 이상은 우계(牛溪) 선생 성훈(成渾)이 지은 선생의 행장 기록이다.

그러나 일부의 야사(野史) 기록에는 선생이 그 가족을 먼저 성(城) 밖으로 피난시켜 놓고 홀로 서울에 있으면서 세 차레나 상소를 올렸다 하였으니 이것은 대체로 반대파들이 선생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기록일 뿐 아니라 뜻밖에 더 해괴한 말들이 왜곡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당시 반대파들이 가장 꺼리는 인물에는 선생과 송강 정철·오음 윤두수 등 세 분의 원로 중신들인데 특히 선생은 기축옥사 때 추관(推官)으로 임명되어 정여립의 역모사건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칙명의 구제를 요청하여 공평함을 많이 얻었으나 여기에 반대파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었으므로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후 선생을 비방하는 글이 여기저기 기록되었다.

더욱이 임진란(壬辰亂)이 일어난 선조 25년에서 광해군 14년까지 30년간은 선생의 반대파들이 전적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선조실록수사(宣祖實錄修史)에도 선생에 대한 기록 부분에 심히 곡필(曲筆)된 것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은 선생의 신도비명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공은 대덕 아량과 의기 절의가 일세의 영웅이요, 탁월한 계획을 수립함이 또한 뛰어나고 생각이 멀고 깊었으나 아첨하고 시기하는 자들에게 배척이 되어 큰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기자헌(奇自獻)과 이이첨(李爾瞻) 등이 일찍이 공을 바로 보지 않더니 그들 실권 하에 선조실록을 감수하면서 공에 대한 기록에 오류가 너무 많았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론이 있음으로 공을 시기하던 자의 사람됨을 알면 또한 자연히 공의 사람됨을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옛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이제 와서는 바른 기록이 거의 없으니 내 감히 이런 말을 지어서 천지 신명께 묻고자 하노라”고 하였다. 또 선생에 대한 이와 같은 왜곡된 기록은 그 후에도 임진란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글에 간혹 잘못 인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까지도 어떤 소설에 나온 글을 보면 임진란이 일어나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자 서울은 술렁거렸고 조정은 피난 준비에 들떠 있었다. 백성들은 서울을 사수한다는 조정의 약속을 불신했다. 이럴 때 유흥(兪泓)이 소(疏)를 올려 백성들의 의심을 대변했다. “한창 위급한 격서(檄書)가 왔다 갔다 하는 터에 내 한 몸 바쳐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는 하지 않고 조정의 높은 관록을 지닌 자들로부터 대궐에 직을 가진 자들일수록 다투어 미투리를 사 챙기니 이는 임금을 따라 도망치려는 행위가 자명합니다. 이에 삼가 아뢰옵건대 사대부들의 이 작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나라의 위기는 백성에게 떠맡기고 저들은 싸움에서 도피하는 형국이라 벼슬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막으소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들은 유흥이 “이미 여러 날 전에 가족들을 피난시켰다.”고 비난하면서 공격하였다.

우리의 역사 기록은 이와 같이 잘못된 논란이 400년 동안이나 인용되어 왔다. 이 상소문에서 보듯이 선생의 주장이 어디에 잘못이 있었던가. 정정당당한 주장이 아니었던가. 왜적이 우리 국토에 침입하였는데 왕이나 조정이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도망칠 생각만 하는 것이 잘한 일이던가. 이런 서천파(西遷派)들이 선생이 가족들을 미리 피난 시켰다고 반격하고 있으나 이는 역지의 중상모략이요, 연보전장(年譜前章)

81) 돈의문(敦義門) : 서대문.

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선생은 임진년 전해에 이미 가족들을 송가하여 광주 땅 우천리 강정에 퇴거하였던 것이다. 설사 서천파들의 반격대로 선생이 가족들을 가까운 광주 땅에 피난시켰다고 할지언정 왕이 선두에 서서 군·관·민을 거느리고 왜적과 싸워 국토를 지키자고 하였던 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어쨌든 서울의 백성들은 도성을 버리고 도망친 왕이나 조정에 격분하여 그날로 궁궐에 불을 질렀다. 궁궐에 불을 지른 것은 왜적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었다. 개성(開城)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망치는 왕이나 조정에 항거했다. 평양(平壤)에서는 백성들의 항거가 더 격심했다. 적어도 평양에서는 더 이상 후퇴하지 말고 왕이 진두에 서서 결사항전을 해야 했다. 왜군들도 긴 보급선에도 평양까지 오면서 기진맥진해 있었고 반면 우리의 형세는 병력이 평양에 어느 정도 집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지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왕이 진두에 서서 결전을 했으면 반드시 승산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현대의 안목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다. 특히 윤두수의 평양 결전 주장은 오늘날 재평가되고 있다. 다만 왕이나 서천파의 중신들이 싸워볼 용기도 없이 하루속히 의주(義州)로 갔다가 사세가 불리하면 명나라로 도망칠 생각만 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으니 나라와 백성을 위한 왕이요 조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평양에 도착하니 왕이 요동으로 건너갈 계획이 더 뚜렷해 졌음을 알고 또 글을 올려 그 계획은 실행임을 강력히 간하였다. 선생은 시종일관 주전론자(主戰論者)였다. 그러나 조금도 싸워볼 의지가 없었던 당시 조정은 선생의 주장이나 계획을 처음부터 용납하지 않았다.

5월에 선생이 우의정이 되었다. 이 무렵 왜적이 평양을 위협하니 왕이 선생에게 육궁을 호위하여 영북(嶺北)으로 피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강원도에 왜적이 이미 대관령을 넘어 온다는 정보를 듣고 또다시 행재(行在)⁸²⁾로 오라는 명을 받았다. 또 왕이 세자에게 명하여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강계로 들어가서 중흥 회복을 도모코자 하니 당시 조정이 양분되는지라 선생은 종묘사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자를 따라 갈 것을 간청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선생이 말하기를 강계는 지형이 너무 험하고 변방에 치우쳐 전국에 명령의 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니 동북방으로 들어가서 군사를 불러 모아 요해지(要害地)를 지킬 계책을 세웠으나 곧 왜적이 영북으로 들어오므로 어가를 다시 관서로 돌렸다. 이천(伊川)에 이르러 각 도에 격서(檄書)⁸³⁾를 보내어 지체 말고 왜적을 토벌할 것을 효휴하니 때마침 사방에서 조정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격서를 보게 된 군민이 활기를 되찾게 되어 상실된 전의(戰意)가 되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였다.

선생이 군대를 강화로 이동시켜 양호(兩湖)⁸⁴⁾를 규합하여 서울의 왜적을 공격하고자 하여 하루에 세 번이나 글을 올려 청하였으나 조정의 의론이 불가하다 함으로 선생이 몸소 전투를 독려할 것을 청하니 왕 세자가 도체찰사를 삼아 제군(諸軍)을 독려하게 하였으나 또한 조정의 의논이 선생의 연로함을 이유로 교체하였다.

82) 행재(行在) : 왕이 있는 곳.

83) 격서(檄書) : 궐기하여 일어날 것을 알리는 글.

84) 양호(兩湖) : 충청도와 전라도.

1593년(선조 26) 기사 70세

이 해 기로사(耆老社)⁸⁵⁾에 들어가다.

정월 명나라의 지원군이 평양을 탈환하다.

4월 서울의 적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자 왕이 선생에게 명하다. 선생이 먼저 서울로 들어가서 불탄 궁궐을 정리하고 한편으로 사상자를 조위(弔慰)하며 생존자를 위로 격려함에 도성의 질서가 점차 확립되어 가더니 또 다시 시류의 풍조가 의론이 합치되지 않자 선생을 시기하는 자들의 논란이 있어 또다시 교체되다. 왕이 서울로 환도하고 선생은 우의정으로서 중전을 호위하는 명을 받고 해주(海州)에 머무르면서 시국의 폐단 열 가지를 지적하여 왕에게 상소를 올렸으니 ‘전란 후에 부역이 번거롭고 무거워 백성들이 생계를 꾸리지 못하고 있음으로 술선수범 검소하고 절약하기’를 간청하였고 ‘궁중의 시녀들이 왕을 뵈고 뇌물을 바치는 것을 물리치라’는 상소를 하니 감히 누구도 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다.

1594년(선조 27) 갑오 71세

11월 6일 수충공성 익모수기 광국공신·추충분의 병기협책 평난공신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左議政, 정1품하)이 되고 영경연사 춘추관 감사를 겸하다. 기성부원군에 봉(封)하다.

11월 27일 수충공성 익모수기 광국공신 1등과 추충분의 병기협책 평난공신 2등이 되다.

12월 25일 무진(戊辰)에 선생이 미질(微疾)로 황해도 해주 우사(寓舍)에서 졸하니 향년 71세이다.

【해설】

11월 27일 광국·평난의 훈호와 대광보국승록대부의 품계 그리고 기성부원군의 봉호만을 내리고 이로 부터 사실상 현직에서 퇴임 되었다.

사계(沙溪) 선생 김장생(金長生)은 선생의 퇴임 소식을 듣고 “임금이 그 신하를 얻었고 나라가 그 사람을 얻었으니 시운(時運)이 불행하여 쓰임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액운을 면키 어렵게 되었으니 참으로 한

85) 기로사(耆老社) : 경노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한 곳, 정2품 이상 증신은 70세가 되면 이름을 적었고 왕도 연로 하면 참여.

탄스러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또 우계 선생 성훈이 찬(撰)한 행장과 계곡(谿谷) 장유(張維)·동명 선생 정두경이 찬한 신도비문에는 다 같이 선생이 독서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집안에는 쌓인 책이 만권(萬卷)이라 하였고 글이 문장이 되어 도도하게 흐르니 잠깐 사이에 수 십 수의 격조 높은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1595년(선조 28) 을미

2월 경신(庚申)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선영(先塋)에 장례를 모시니 인갑좌(寅甲坐)에 신경(申庚)의 향(向)이다.

1596년(선조 29) 병신

갈충진성(竭忠盡誠) 동덕찬모(同德贊謨) 위성공신(衛聖功臣)의 훈호와 대광보국승록대부의 품계와 의정부 영의정(領議政, 정1품하)의 관직에 경연영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춘추관영사 성균관지사 관상감영사 세자시강원사전 등을 겸하여 기성부 원군을 추증(追贈)하고 충목(忠穆)의 시호(諡號)⁸⁶⁾을 내리니 “몸을 위태롭게 하여 상(上, 임금)을 받드는 것을 ‘충(忠)’이라 하고 생각이 깊고 먼 것을 ‘목(穆)’이라” 한다.

부인 숙부인(淑夫人)⁸⁷⁾은 정경부인(貞敬夫人)⁸⁸⁾으로 추증된 광주이씨(廣州李氏)로 아버지는 홍문관 교리 준인(遵仁)이다. 중종 17년 임오(壬午, 1522)에 출생하여 명종 20년 을축(乙丑, 1565) 11월 21일 서울에서 돌아가시니 수가 44세이다. 3남 1녀를 낳았다.

장남 대술(大述)은 평난(平難) 원종(原從)⁸⁹⁾공신 2등이며 기천군(杞川君)에 봉하고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차남 대건(大建)은 위성(衛聖)공신 3등이며 진사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대사간(大司諫, 정3품상)에 이르렀다

3남 대진(大進)은 평난(平難)공신으로 임진란에 의병장이요 진사 문과에 급제하여

86) 시호(諡號) : 옛날에 왕이나 훌륭한 인물들이 죽은 뒤에 임금이 주던 이름.

87) 숙부인(淑夫人) : 정3품 관원의 처에게 주는 벼슬.

88) 정경부인(貞敬夫人) : 종1품 이상 관원의 처에게 주는 벼슬.

89) 원종(原從) : 흔히 공신의 자제들에게 주는 공훈.

벼슬이 공조참의(工曹參議, 정3품상)에 이르고 이조판서와 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딸은 시정(寺正, 정3품상) 김탁(金琢)에게 출가하였다.

후부인(后夫人)은 정경부인 강릉김씨(江陵金氏)로 아버지는 서령(署令) 광열(光烈)이다. 명종 원년 병오(丙午, 1546)에 출생하여 광해군 2년 경술(庚戌, 1610) 5월 4일에 돌아가시니 수가 65세이다. 1남 1녀를 낳았다.

아들 대일(大逸)은 음관(蔭官)⁹⁰으로 돈령부 지사가 되었으며 기창군(杞昌君)을 봉하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딸은 판서 김집(金集)에게 출가하니 김집은 유학으로 문묘(文廟)에 배향이 되었다.

측실(側室)에 1남이 있으니 대조(大造)이다.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벼슬이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에 이르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1612년(광해군 4) 입자

12월 정유(丁酉)에 고양 관산리에서 경기좌도 광주 산곡리 검단산에서 내린 언덕 간좌(艮坐) 곤향(坤向)에 이장(移葬)하였다. 표석·상석·병풍석·명등석·옹중석·망주석·동자석·신도비가 있으며, 세 분을 함께 모시었다.

1641년(인조 19) 신사

송당집(松塘集)을 간행하다.

90) 음관(蔭官) : 과거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는 벼슬.

【原文】

俞氏 出慶州杞溪縣 始祖三宰 顯於新羅 官阿漑 羅亡 有諱義臣 麗初 以新羅世臣 不臣服 高麗降屬杞溪戶長 仍以爲貫 其後 諱汝諧 登第 當時 崔沆用權專橫 作詩 譏沆 遂流配海島而卒 事在麗史 九世祖 諱得瑄 官左僕射 八世祖 諱僖 七世祖 諱承桂 官皆版圖判書 門戶遂大 入國朝高祖 諱解 成均進士 贈吏曹參判 曾祖 諱起昌 官僉知中樞府事 贈兵曹判書 祖 諱汝諧 官禮曹判書 諡景安公 考 諱綰 成均生員 贈議政府領議政 杞溪府院君 妣 宜寧南氏 贈貞敬夫人 秋江先生 孝溫之孫 贈司僕寺正 忠世之女也 先生 諱泓 字止叔 號松塘 官至議政府左議政 功勳 光國一等 平難二等 封杞城府院君 諡忠穆

中宗 十九年(一五二四) 甲申 一歲

十一月 二十五日 生於京城西部 盤松坊 昭義門外 圮橋 京第

中宗 二十六年(一五三一) 辛卯 八歲

隨祖考景安公 考杞溪府院君 退歸庇仁 是歲 十月初 景安公 拜戶曹參判 倡率六卿 論劾 禮曹判書 金安老 誤國之罪 奮告身 放逐鄉里

中宗 二十九年(一五三四) 甲午 十一歲

九月 丁外艱

中宗 三十二年(一五三七) 丁酉 十四歲

隨祖考景安公 還京 十月 景安公 敍用 拜禮曹判書 大司諫 梁淵 大司諫 黃憲 率兩司多官 請從公論 快正金安老之罪 上命賜死 後數日 特命

中宗 三十三年(一五三八) 戊戌 十五歲

十月 祖考 景安公喪

中宗 三十八年(一五四三) 癸卯 二十歲

四月 歸庇仁 梨花洞鄉第 尋訪 桃花洞 從祖母宅 從祖母 感淚贈詩曰
地僻人來少 山深谷事稀 家貧無斗酒 宿客夜還歸
從祖母 卽 林碧堂金氏 朝鮮中期 與師任堂申氏 蘭雪軒許氏 竝稱 我東方
三大閨秀詩人

明宗 四年(一五四九) 己酉 二十六歲

九月 中進士試

明宗 八年(一五五三) 癸丑 三十歲

三月 別試文科 及第

閏三月 除拜 權知承文院副正字

明宗 九年(一五五四) 甲寅 三十一歲

九月 拜從仕郎 藝文館檢閱 兼春秋館記事官 差璿源錄 書寫官

明宗 十年(一五五五) 乙卯 三十二歲

七月 拜通仕郎 藝文館待教 兼春秋館記事官

八月 差清洪道 曝曬別監

十一月 通仕郎 守承政院注書 兼春秋館記事官

明宗 十一年(一五五六) 丙辰 三十三歲

二月 陞啓功郎

八月 陞務功郎

九月 陞宣務郎

十二月 宣務郎 守成均館典籍 移宣務郎 守工曹佐郎

明宗 十二年(一五五七) 丁巳 三十四年

正月 有江原道 御史之命

四月 宣務郎 弘文館副修撰 知製教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六月 宣務郎 守成均館典籍 坐隸習官 中遞副修撰

七月 秉節校尉 守慶尙道 兵馬評事

八月 陞勳節校尉 當時 倭寇甫平 朝廷 以先生 有武略 特被選出 爲此職

明宗 十三年(一五五八) 戊午 三十五歲

二月 陞進勇校尉

四月 承訓郎 弘文館修撰 知製教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六月 承訓郎 兵曹佐郎 移承訓郎 弘文館修撰 知製教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七月 陞承訓郎 兵曹佐郎 兼宣傳官 春秋館記事官

八月 有慶尙道 御史之命

九月 差慶尙點馬

十二月 有平安道 江上御史之命

明宗 十四年(一五五九) 己未 三十六歲

正月 承訓郎 行弘文館副修撰 知製教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移承訓郎 兵曹佐郎 又承訓郎 行弘文館副修撰 知製教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三月 陞修撰 自此漸次轉命也 同月 承訓郎 兵曹佐郎 自此 除修撰者 七 爲兵曹佐郎者 三

四月 承議郎 司諫院正言

六月 承議郎 司憲府持平 移承議郎 行弘文館副修撰 知製教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七月 承議郎 守司憲府持平

八月 承議郎 守工曹正郎 移承議郎 守兵曹正郎

九月 陞奉訓郎

十二月 奉訓郎 行弘文館副修撰 知製教 兼經筵檢討官 春秋館記事官

明宗 十五年(一五六〇) 庚申 三十七歲

正月 奉訓郎 守兵曹正郎

四月 差問事郎廳 時有殺主者 三省交坐

五月 承議郎 成均館典籍 即日 旋拜吏曹佐郎 時有人 擊錚於闕庭 坐不禁亂入之人 典籍 未下批

六月 承議郎 吏曹佐郎 知製教

九月 陞奉直郎

十一月 以身病 暫時休職

十二月 奉直郎 行成均館典籍 知製教

明宗 十六年(一五六一) 辛酉 三十八歲

二月 奉直郎 行吏曹佐郎 知製教

五月 通善郎 行京畿都事 兼春秋館記注官

九月 陞通德郎 差京畿道 點馬

十一月 陞朝散大夫

明宗 十七年(一五六二) 壬戌 三十九年

四月 朝散大夫 行兵曹佐郎 知製教

七月 有咸鏡道 御史之命

明宗 十八年(一五六三) 癸亥 四十歲

五月 奉正大夫 行弘文館校理 知製教 其日 又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

六月 奉正大夫 行兵曹正郎 知製教

七月 奉正大夫 行議政府檢詳 知製教 兼春秋館編修官

八月 奉正大夫 議政府舍人 其日 兼知製教 春秋館編修官

九月 差備邊司郎廳 陞中直大夫

十月 兼宣傳官廳 宣傳官

十二月 陞通訓大夫 訓練都監 賞加也 通訓大夫 行司憲府掌令 知製教

明宗 十九年(一五六四) 甲子 四十一歲

正月 通訓大夫 行司憲府執義 知製教 先生 上疏 陳時弊 疏曰 內旨除官 屢降于政廳 此何異斜封墨勅 恐爲 聲明之大累 辭甚剴切 明宗 心惡其疏 遂以先生 左遷其職

二月 通訓大夫 司僕寺正 知製教 坐陳疏遞

閏二月 平安道 兵器摘奸 御史之命

八月 闈監試 先生 爲考試官 時德水人 栗谷 李先生 珥 以義理之文 爲多士冠 或庇其少日 耽禪 先生曰 初學之誤 先儒所不免 今既反之正矣 何咎焉 議遂正 識者趨之

八月 有清洪道 御史之命

十月 通訓大夫 行議政府舍人 知製教 兼春秋館編修官

明宗 二十年(一五六五) 乙丑 四十二歲

二月 通訓大夫 行弘文館應教 兼經筵侍讀官 春秋館編修官

三月 通訓大夫 行議政府舍人 知製教 兼春秋館編修官

四月 差文定王后 山陵都監 郎廳

九月 命陞通政大夫 以都監賞加也 折衝將軍 行龍驤衛司直 知製教

十月 二日 折衝將軍 行虎賁衛護軍 兼五衛 知製教

十月 七日 折衝將軍 行虎賁衛大護軍

十月 十九日 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 知製教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明宗 二十一年(一五六六) 丙寅 四十三歲

三月 通政大夫 行春川都護府使 原州鎮管 兵馬同僉節使 先生 以親老 乞養 除春川府使 爲政寬仁 賦役均平 舉郡人民 甚便之 其道伯 以先生 治行第一 上褒聞 特賜表裏褒嘉 替還 邑人思其德 立遺愛碑 於市中 大路邊 永世不

忘 又 模像而祀之 在任時 一郡民 有獻白雉 請聞於朝者 先生 却之曰 此何足爲瑞耶 不受

宣祖 元年(一五六八) 戊辰 四十五歲

八月 折衝將軍 行義興衛護軍 知製教 其月 兼五衛

九月 通政大夫 戶曹參議 知製教

十一月 通政大夫 守忠清道觀察使 兼水軍兵馬節度使

宣祖 二年(一五六九) 己巳 四十六歲

十一月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宣祖 三年(一五七〇) 庚午 四十七歲

二月 通政大夫 承政院左副承旨 知製教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四月 叔父 肅敏公喪 撰行狀 及墓誌

宣祖 四年(一五七一) 辛未 四十八歲

八月 折衝將軍 行龍驤衛大護軍 知製教 兼五衛

十月 通政大夫 禮曹參議 兼知製教

宣祖 五年(一五七二) 壬申 四十九歲

四月 通政大夫 守全羅道觀察使 兼水軍兵馬節度使 先生 本道在任時 刷還漂流中國人 明天子 特賜表裏二襲 白金二十兩

宣祖 六年(一五七三) 癸酉 五十歲

五月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七月 嘉善大夫 行會寧都護府使 兼會寧鎮管 兵馬同僉節制使

宣祖 七年(一五七四) 甲戌 五十一歲

正月 陞虎賁衛上護軍

三月 嘉善大夫 行虎賁衛上護軍 兼五衛 嘉善大夫 開城留守

宣祖 八年(一五七五) 乙亥 五十二歲

正月 在開城府 丁母夫人喪事

宣祖 十年(一五七七) 丁丑 五十四歲

三月 嘉善大夫 行義興衛上護軍

五月 兼昌慶宮 扈衛將

六月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七月 嘉善大夫 慶尙道觀察使 兼水軍兵馬節度使

宣祖 十一年(一五七八) 戊寅 五十五歲

正月 嘉善大夫 行僉知中樞府事 尋坐論見罷 未交代經還

六月 嘉善大夫 漢城府右尹 以病交遞

八月 同知中樞府事 兼五衛將

十月 嘉善大夫 刑曹參判

宣祖 十二年(一五七九) 己卯 五十六歲

二月 坐泰陵 屏石動退 見罷 乙丑 四月 文定王后 昇遐時 先生 爲山陵都監故有此責

三月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同月 嘉善大夫 刑曹參判 特下別斜用命于先生也

五月 嘉善大夫 戶曹參判 其日 差典牲署提調

宣祖 十三年(一五八〇) 庚辰 五十七歲

二月 兼五衛都摠府副摠管

六月 差承文院提調

八月 同知義禁府事

宣祖 十四年(一五八一) 辛巳 五十八歲

正月 嘉善大夫 咸鏡道觀察使 兼水軍兵馬節度使 咸興府尹

宣祖 十五年(一五八二) 壬午 五十九歲

十二月 特拜資憲大夫 漢城判尹

宣祖 十六年(一五八三) 癸未 六十歲

正月 差備邊司提調

二月 差承文院提調 又差繕工監提調 又差典涓司提調

三月 兼知義禁府事

九月 資憲大夫 工曹判書 兼知義禁府事

十一月 兼五衛都摠府都摠管

宣祖 十七年(一五八四) 甲申 六十一歲

二月 資憲大夫 禮曹判書 兼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都摠管

八月 資憲大夫 行平安道觀察使 兼水軍兵馬節度使 平壤府尹

宣祖 十九年(一五八六) 丙戌 六十三歲

八月 資憲大夫 知中樞府事

十月 差典設司提調

宣祖 二十年(一五八七) 丁亥 六十四歲

四月 差備邊司提調

八月 差典設司提調 又差承文院提調

十月 先生 以謝恩使 前往京師時 明皇帝 賜蟒衣 有是行 其形治似袞衣之班 東史實錄云 先是 明國 誤認李太祖 爲高麗權臣 李仁任之子 著之會典 自太宗以來 屢遣使 辨誣 請改其書 明國 許之而未果也 至先生往時 改刊會典以來

宣祖二十一年(一五八八) 戊子 六十五歲

- 二月 先生 在玉河關 聞大明會典 本國付卷印完 呈文于禮部本部 皇帝降勅順付
- 五月 賚還本國 宣祖 迎勅于郊 即日 賜奴婢五口 田畝三十結 官綜三十同 其日 仍命 超資
- 五月 十一日 特拜 崇祿大夫 判中樞府事
- 五月 二十五日 崇祿大夫 行禮曹判書
- 閏六月 差惠民署提調
- 七月 差掌樂院提調 兼五衛都摠府都摠管
- 十一月 崇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是日 政參卜相而 特命是職
- 十二月 崇祿大夫 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知經筵事

宣祖二十二年(一五八九) 己丑 六十六歲

- 九月 崇祿大夫 判敦寧府事 兼判義禁府事 以病呈狀 命只遞禮曹判書 是歲 前修 撰 鄭汝立 以謀反 起己丑獄事

宣祖二十三年(一五九〇) 庚寅 六十七歲

- 正月 封杞城君 宣廟將策會典功臣最先封君 以承文院提調 特受熟馬一匹
- 二月 十二日 輔國崇祿大夫 行議政府左贊成 兼判義禁府事 知經筵事 封杞城君 以逆賊推官同月卜相特加焉
- 二月 十九日 輔國崇祿大夫 杞城府院君 兼知經筵事
- 三月 以推官 窮鞫逆賊 特賜田畝八結 奴婢六口
- 五月 卜相
- 六月 輸忠貢誠 翼謨修紀 光國功臣 推忠奮義 炳幾協策 平難功臣 輔國崇祿大夫 杞城府院君 兼知經筵事
- 八月 九日 特賜逆賊 家舍財物 上尊號 都提調 賜熟馬一匹
- 八月 十六日 光國 一等勳 平難 二等勳
- 八月 二十五日 光國 會盟祭
- 八月 二十六日 平難 會盟祭 光國 會盟宴 賜一等 俞泓 尹根壽 黃廷彧 賞 奴婢十三

口 田畝一百五十結 兵曹吏七口 伴僮十口 白金五十兩 內廐馬一匹 表裏一襲 平難 會盟宴 二等賞 奴婢十口 田畝百結 兵曹吏四口 伴僮八口 白金三十兩 外廐馬一匹 表裏一襲 兩會盟 各賜熟馬一匹

九月 兼五衛都摠府都摠管

十月 六日 兼領經筵事

十月 十日 兼知經筵事 臺諫 以非大臣 兼領經筵事 違法典 論遞領經筵事 改下批

十一月 二十五日 先生誕日 宣祖 別賜功臣宴于闕庭 賜馬一匹 乃外方進上之物也

十一月 二十六日 輸忠貢誠 翼謨修紀 光國勳 推忠奮義 炳幾協策 平難勳 輔國崇祿大夫 行吏曹判書 兼知經筵事 封杞城府院君 以判書 入參 獄事珠連 先生 啓於經席曰 楚獄多濫 恐貽後議以故 多有平反者 仍以左相 柳成龍 兼吏曹判書 先生 特命遞之

宣祖 二十四年(一五九一) 辛卯 六十八歲

正月 光國功臣 平難功臣 輔國崇祿大夫 封杞城府院君 兼知經筵知事

九月 兼五衛都摠府都摠管 是歲春 先生 退居廣州 退村面 黔丹山 東偏山下 牛川里 林泉 幽僻之處 先生 休退于此 仍稱退村而 其名 至今未泯也

宣祖 二十五年(一五九二) 壬辰 六十九歲

四月 兼五衛都摠府都摠管

四月 十三日 倭軍 大舉侵入

五月 輸忠貢誠 翼謨修紀 光國功臣 推忠奮義 炳幾協策 平難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右議政 兼領經筵事 封杞城府院君 先是 三卜相 至時 始受焉 是月 仍命 都體察使

宣祖 二十六年(一五九三) 癸巳 七十歲

正月 天兵 拔平壤

四月 京城之賊 亦棄城遁去 上 命公 先往 京師 汎掃宮庭 弔問遺民 榮來安集 百

司 漸復舊草而 施措 又與時議不合 臺諫 論遞保釐之任 及 上還都 以右相
扈衛中殿 留海州上筭 陳時弊十餘條 有曰 喪亂之餘 賦役煩重 民不聊生
請病自儉約 蠲除不急之務 恩結民心 以爲祈天永命之本 又言 官禁不嚴 女
謁于政 賄賂公行 皆人所不敢言者

宣祖 二十七年(一五九四) 甲午 七十一歲

十一月 六日 輸忠貢誠 翼謨修紀 光國功臣 推忠奮義 炳幾協策 平難功臣 大匡輔
國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事監 春秋館事 封杞城府院君

十一月 二十七日 輸忠貢誠 翼謨修紀 光國功臣 一等勳 推忠奮義 炳幾協策 平難
功臣 二等勳

十二月 二十五日 戊辰 先生 以微疾 卒于黃海道 海州寓舍 享年七十一

宣祖 二十八年(一五九五) 乙未

二月 庚申 葬于京畿右道 高陽郡 官山里 先塋之側 寅甲坐 申庚之原

宣祖 二十九年(一五九六) 丙申

贈先生 竭忠盡誠 同德贊謨 衛聖功臣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
事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 春秋館領事 成均館知事 觀象監領事 世子師傅 封
杞城府院君 贈諡忠穆 危身奉上曰忠 思慮深遠曰穆

配 淑夫人 贈貞敬夫人 廣州李氏 父 弘文館校理 遵仁 中宗十七年 壬午歲生 明宗
二十年 乙丑歲 十一月 二十一日 卒于京城 壽四十四 生三男一女 長男 諱大述 平
難 原從 二等勳 封杞川君 贈兵曹參判 次男 諱大建 衛聖 三等勳 進士文科 官大司
諫 次男 諱大進 平難勳 壬辰義兵將 進士文科 官兵曹參議 贈吏曹判書 大提學 女
適寺正 金琢

後配 貞敬夫人 江陵金氏 父 署令 光烈 明宗元年 丙午歲生 光海主二年 庚戌歲 五
月 四日卒 壽六十五 有一男一女 男 諱大逸 蔭官知敦寧府事 封杞昌君 贈左贊成
女適判書 光山金集 配享文廟

側室 有一男 諱大造 靖社功臣 官典牲主簿 贈左承旨

光海朝 四年(一六一二) 壬子

十二月 丁酉 自西郊 高陽 官山里 遷葬于京畿左道 廣州 中山谷里 黔丹山 來龍 艮
坐坤向之原 巽巳得水 辛破 有表石 床石 屏風石 明燈石 翁仲石 望柱石 童子石 神
道碑 三合窆

仁祖 十九年(一六四一) 辛巳

松塘集 刊行

송당 유흥 선생 생애

松塘 兪泓 先生 生涯

2023년 11월 23일 발행

발행인 기계유씨 총목공파 대표 유재형(兪載衡)

발행처 기계유씨 총목공파 광주종중(廣州宗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29 대유빌딩 7층

TEL 031-791-0105 FAX 031-792-6060

출판사 고려금석원

高麗金石院

진한용



〈등록/1998. 8.25, 제99-3-4호〉

M.P 010-5253-9290